

ICDC Weekly

인천광역시 감염병 주간소식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발행일 2024. 11. 20.(수) 통권 제26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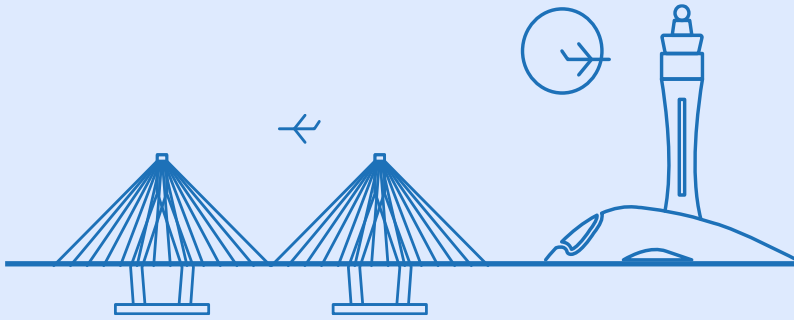
발행처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2층

연락처 032-440-8031

- 01 주간 감염병 소식
- 02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
- 03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
- 04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 05 홍보자료

[부록] 2024년 백일해 발생 현황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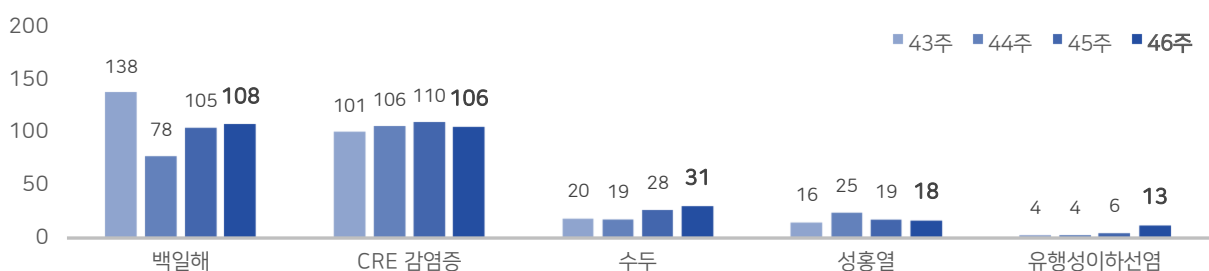
주간 감염병 소식

전국 및 인천광역시 감염병 누적 신고 현황



- (전국) 전국 감염병은 CRE 감염증 48,801건, 백일해 34,714건, 수두 25,622건, 유행성이하선염 5,709건, C형간염 5,617건 순으로 신고됨
- (인천) 인천광역시 감염병은 CRE 감염증 4,435건, 백일해 3,601건, 수두 1,027건, 성홍열 525건, C형간염 456건 순으로 신고됨
- 신고현황은 '24. 11. 20(수)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24년 누적기간(1주차~46주차)에 신고된 다빈도 5개 감염병에 대한 누적신고 건수임

인천광역시 다빈도 감염병 주요 신고 현황



- 46주차 인천광역시 감염병은 총 290건 신고되었으며, 최근 3주(43~45주) 평균(280건) 대비 10건 증가함
- 신고수 상위 5개 감염병은 백일해 108건, CRE 감염증 106건, 수두 31건, 성홍열 18건, 유행성이하선염 13건 순서임
- 소식지 내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2페이지)을 참조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

구 분		인천								전국			
		2024				동기간대비 (1-46주)				동기간대비 (1-46주)			
		46주	45주	44주	43주	2024	2023	증감	5년 평균	2024	2023	증감	5년 평균
1급	보툴리눔독소증										1	▼ 1	0
	수두	31	28	19	20	1,027	1,006	▲ 21	1,054	25,622	22,033	▲ 3,589	22,238
	홍역					2		▲ 2	0	47	5	▲ 42	12
	장티푸스					2		▲ 2	2	23	17	▲ 6	33
	파라티푸스					1	2	▼ 1	2	19	21	▼ 2	30
	세균성이질					3	2	▲ 1	2	36	31	▲ 5	2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	12	6	▲ 6	9	240	205	▲ 35	213
	A형간염	2	1	5	1	62	54	▲ 8	223	1,049	1,168	▼ 119	2,688
	백일해	108	105	78	138	3,601	3	▲ 3,598	722	34,714	140	▲ 34,574	7,005
2급	유행성이하선염	13	6	4	4	303	390	▼ 87	369	5,709	7,082	▼ 1,373	7,199
	풍진												0
	수막구균 감염증								0	15	10	▲ 5	7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	1	- 0	1
	폐렴구균 감염증				1	29	36	▼ 7	26	381	357	▲ 24	318
	한센병								0	2	2	- 0	2
	성홍열	18	19	25	16	525	24	▲ 501	142	5,286	628	▲ 4,658	1,844
	VRSA 감염증									1	2	▼ 1	3
	CRE 감염증	106	110	106	101	4,435	2,680	▲ 1,755	2,457	48,801	34,222	▲ 14,579	29,274
	E형간염	2		2	1	44	28	▲ 16	26	660	495	▲ 165	516
3급	파상풍					4	2	▲ 2	1	29	21	▲ 8	23
	B형간염					16	14	▲ 2	18	228	282	▼ 54	311
	일본뇌염					1	1	- 0	1	12	17	▼ 5	14
	C형간염	9	10	8	9	456	543	▼ 87	592	5,617	6,499	▼ 882	7,843
	말라리아		1		1	120	125	▼ 5	80	685	739	▼ 54	500
	레지오넬라증					27	19	▲ 8	24	367	411	▼ 44	368
	비브리오패혈증					4	8	▼ 4	5	49	69	▼ 20	56
	발진열						1	▼ 1	1	12	16	▼ 4	8
	쯔쯔가무시증		4	5	3	15	43	▼ 28	33	3,364	4,205	▼ 841	3,669
	렙토스피라증						1	▼ 1	1	49	51	▼ 2	80
	브루셀라증						1	▼ 1	0	5	4	▲ 1	5
	신증후군출혈열					5	4	▲ 1	4	281	386	▼ 105	270
	CJD/vCJD					6	2	▲ 4	3	61	61	- 0	60
	Dengue열					12	13	▼ 1	7	176	166	▲ 10	93
	큐열						3	▼ 3	2	49	50	▼ 1	53
	라임병				1	2	9	▼ 7	3	21	40	▼ 19	21
	유비저									2	2	- 0	2
	치쿤구니야열									5	11	▼ 6	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4		▲ 4	3	153	198	▼ 45	191
	지카바이러스감염증										2	▼ 2	1
	엡폭스		1			1				17			
	매독	1	2	1	2	137				2,460			
	매독(선천성)									14			

- 46주차(2024. 11. 10. ~ 2024. 11. 16.) 전수감시 신고 현황은 2024. 11. 20(수)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매해 통계자료는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 5년 평균은 최근 5년(2020-2024)의 1주부터 해당 주까지 누적 신고수의 평균이며, E형간염은 최근 4년(2021-2024)의 1주부터 해당 주까지 누적 신고수의 평균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기초로 집계되며, 감염병별 신고범위에 따라 감염병종류,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 포함될 수 있음

- 지역별 통계는 환자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함 (단, VRSA 감염증과 CRE 감염증은 신고한 의료기관 주소지 기준임)

- 최근 5년(2020-2024)동안 발생이 없었던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리스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아토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콜레라, 폴리오, 발진티푸스, 공수병, 황열, 웨스트나일열, 진드기매개뇌염은 제외함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현황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현황(2024-2025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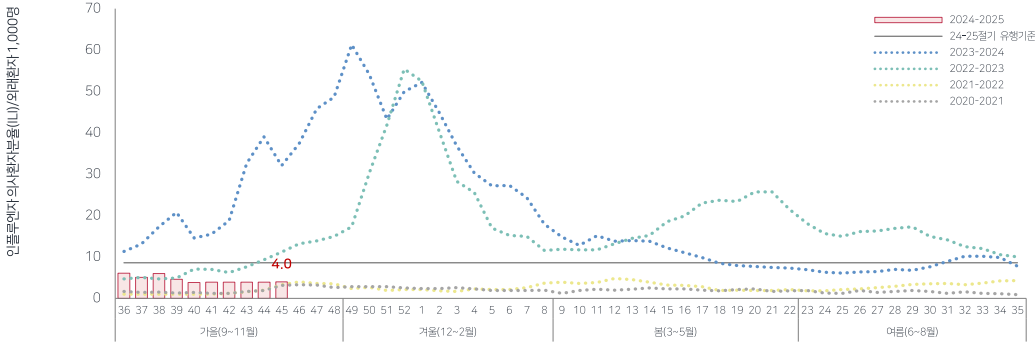
- (전국) 45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4.0명으로 전주(3.9명) 대비 증가

※ 2024-2025절기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8.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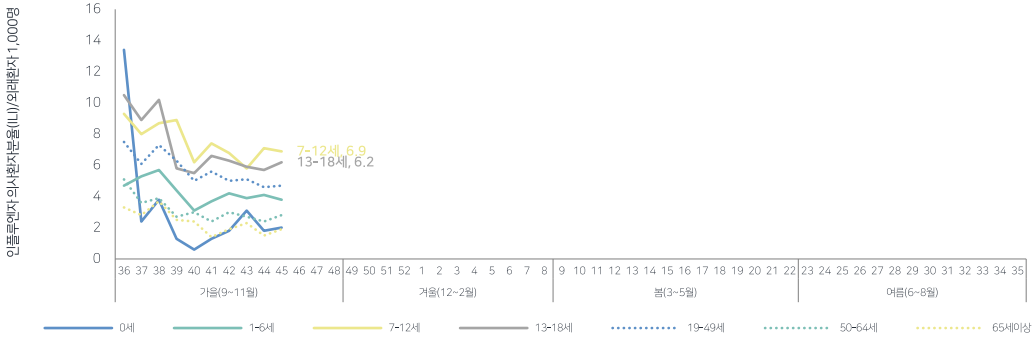
단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진료환자 1,000명

구분	2024년							
	38주	39주	40주	41주	42주	43주	44주	45주
전국	6.0	4.6	3.8	3.9	3.9	3.9	3.9	4.0

최근 5절기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전국)



2024-2025절기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전국)



1)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전분율)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총 진료환자 수) x 1,000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현황

주별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7종) 및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입원환자 현황

- (전국) 45주차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835명으로 전주(656명) 대비 증가*
- * 7종 바이러스 모두 전주 대비 증가
- (전국) 45주차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입원환자는 27명으로 전주(31명) 대비 감소
- (전국) 45주차 코로나19바이러스 입원환자는 76명으로 전주(92명) 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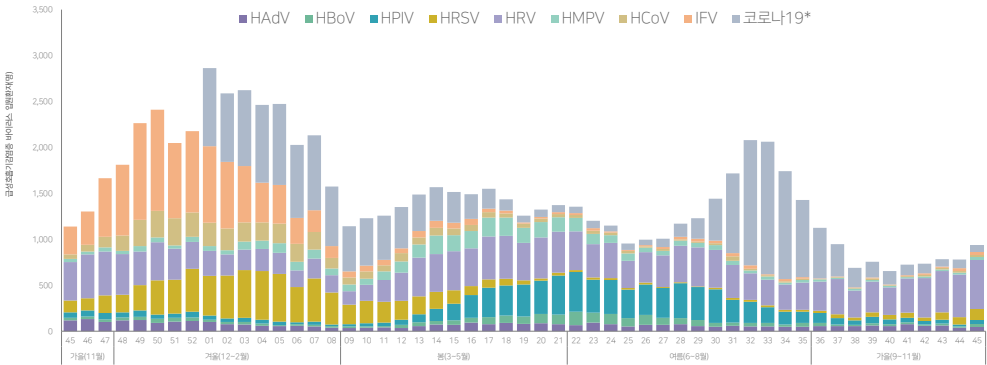
- 45주차(2024.11.3~2024.11.9.) 표본감시 현황은 2024.11.18.(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통계 및 2024년도 45주차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현황은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현황은 표본감시 참여기관에 입원한 환자 감시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수행기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 전국 198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의원) / 전국 220개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병원급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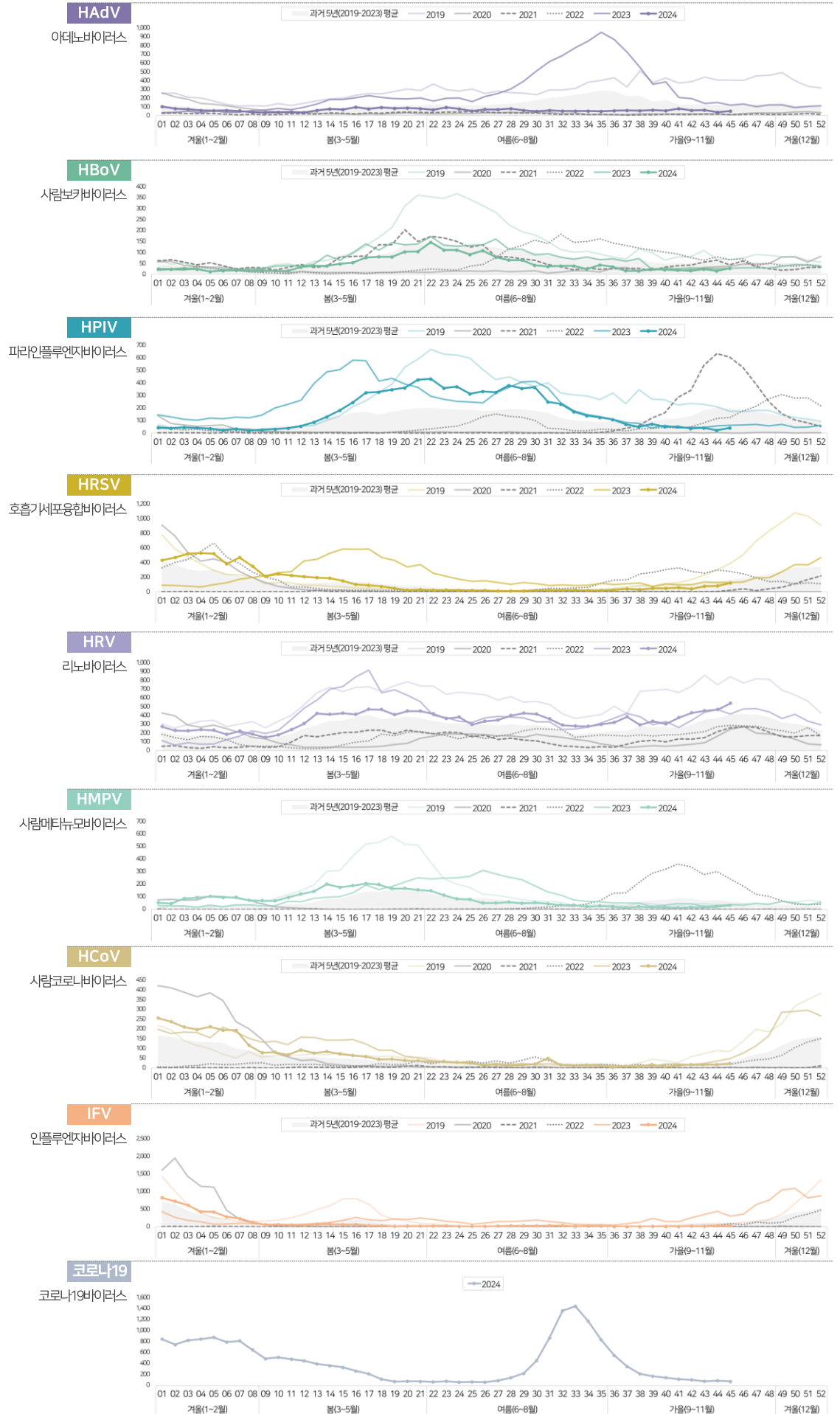


* 코로나19는 2024년 1주부터 포함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

● 최근 5년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7종) 및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입원환자 현황

<전국>



국내 '항·필·제·사'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

- 질병관리청, 2024년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 운영
- 일반인과 의사 모두 항생제 적정사용 인식 낮아

-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이하여, 국민들의 항생제 내성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힘.
-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인류가 당면한 10대 공중보건 위협으로 선정하였고, 코로나 19 이후 전세계 항생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생제 내성 문제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각국의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있음.
-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들이 항생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존·증식하여 치료가 어려운 현상을 의미함.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면 선택할 수 있는 치료제의 종류가 줄어들고, 특히 면역 저하자나 중증 감염 환자의 치료 경과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함.
 -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항생제 오남용으로,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약 1.2배 높고(2021년 기준),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항생제 중 약 30%가 부적절한 처방인 것으로 알려짐.
-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일반인 모두가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항생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 의사는 지침에 따라 항생제를 적절하게 처방*하고, 일반인은 처방된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며, 의사에게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함
 - * 적절한 약제 종류, 투여 용량, 투여 시기, 투여 경로 등을 선택
 - 일반인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52.9%) 정도가 항생제 내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30% 이하에서만 항생제의 의미와 용도를 올바르게 이해함.
 - 의사의 경우, 응답자 약 10명중 7명이 항생제 내성을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했고, 주로 의사의 과도한 항생제 처방(55.9%)과 환자의 항생제 복용 임의 중단(22.1%)으로 항생제 내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함.
- 이번 인식주간에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적정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항필제사”를 캠페인 표어로 활용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항생제 내성 콘텐츠를 개발하여 배포함.
 - 항생제 내성의 발생과 전파 원리, 예방관리 수칙 등 일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팩트시트와 함께 심화 해설 동영상을 제작하여 누리집에 공개하고, 학교 내 활동이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의 항생제 내성 인식을 제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령별 카드뉴스도 개발하여 제공함.

※ 출처: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4. 11. 18.)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국외 Dengue fever

- (유럽) 2023년 대비 발생 규모 증가
- 2024년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에서 지역 내 감염 보고

- 유럽 일부 지역에서 2010년 이후 지역사회 내 Dengue fever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보고되었으나, 2024년에는 발생 규모가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2024년 지역 내에서 Dengue fever 발생이 확인된 국가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3개국이며, 모두 2023년 대비 발생 증가 및 역대 최대 발생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는 2024년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에서 역대 최대 Dengue fever 유행 상황에 대해 매개 모기인 흰줄숲모기가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Dengue fever 발생이 이례적인 상황은 아님을 언급함.

유럽의 국가별 지역사회 전파 Dengue fever 발생 현황

국가명	201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탈리아	10	0	82	213
프랑스	47	65	45	85
스페인	7	6	3	8
크로아티아	10	0	0	0

국외 Zika virus

- (전 세계) 중남미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 발생
- 중남미에서는 주로 브라질에서 발생 및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태국에서 보고

- 2024년 중남미 지역에서는 44주차 기준, 의심사례를 포함하여 총 39,945명(확진 1,999명)이 보고되었으며, 2023년 동기간 발생 35,640명과 비교하여 약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 환자는 브라질(의심사례 39,133명, 확진 1,949명)에서 발생 보고되었으며, 그 외에도 볼리비아(220명), 아르헨티나(202명), 콜롬비아(114명), 엘살바도르(76명), 과테말라(76명), 벨리즈(31명) 등에서도 환자가 발생하였음.
- 아시아에서는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대부분 국가가 감시체계 미비로 환자 발생이 확인되지 않으며, 인도와 태국에서만 발생이 보고되고 있음.
 - 인도는 지난 7월 이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지역을 중심으로 103명의 환자가 보고되었으며, 이외에도 카르나카타와 구자라트주에서도 환자 발생이 보고됨.
 - 태국은 2023년 발생 증가가 보고된 국가로 758명의 환자가 보고되었으며, 2024년 11월 1일 기준 42개 지역에서 347명의 환자가 보고되어 발생이 지속 중으로 나타남
 - 한편 파키스탄은 지역 내 전파가 보고되지 않았던 국가였으나, 후향적 연구를 통해 2021년과 2022년에 카라치에서 발생했던 Dengue fever 유사 질환의 원인이 Zika virus였음이 확인되었음.

※ 출처: 질병관리청 주간 해외감염병 발생동향 제 43호(2024. 11. 14.)

국외 치쿤구니아열

- (인도) 텔랑가나주 여행 관련 경보 발령
- 인도 전역에서 치쿤구니아열 등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 지속 중

- 현재 인도 내 공식적인 2024년 치쿤구니아열 발생 현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최근 수년간 전반적인 발생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도 우기로 인한 모기 매개 감염병 유행 시즌에 접어든 이후 인도 전역에서 큰 규모의 유행이 보고되고 있음.
 - 2018년에는 약 6만 7천여명의 치쿤구니아열 환자 발생이 보고되었으나, 2023년에는 2018년의 약 3배에 달하는 21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였음.
 - 또한 올해도 인도 전역에서 치쿤구니아열 발생 증가가 보고되고 있으며,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텔랑가나주의 하이데라바드를 포함하여 델리, 푸네, 나그푸르, 뭄바이, 보팔, 아마다바드 등 주요 도시에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 텔랑가나주의 주도인 하이데라바드에서는 올해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급증하여 약 1만 5천명의 치쿤구니아열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Dengue열도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약 3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 하이데라바드시 보건당국은 10월 초부터 치쿤구니아열 예방을 위한 유충 방제, 살충제 살포, 고인 물 제거, 시민 대상 인식개선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이외에도 환자 및 매개체 감시를 강화함.
 - 올해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 증가는 계절적 요인 외에도 도시화, 기후변화, 열악한 위생환경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최근 인도 텔랑가나주 관련 치쿤구니아열 환자 유입이 증가하였음을 알리고,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자 경보 2단계를 발령하였음.
 - CDC는 인도 텔랑가나주를 방문 시 모기물림 예방을 위해 방충제 사용, 긴팔과 긴바지 착용 등을 권고하였으며, 18세 이상인 경우 여행 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하였음.
 - 치쿤구니아열은 수직감염이 가능하며, 임신부가 감염될 시 중증화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임신 중이면 여행을 재고할 것과, 임신 초기인 14주 이전과 후기인 36주 이후에는 예방접종을 피할 것을 안내함.
- CDC는 인도를 포함하여 최근 5년 내 치쿤구니아열 발생이 확인된 52개 국가를 홈페이지로 안내중이며, 해당 국가 방문 시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음.
 - 치쿤구니아열 백신(IXCHIQ)은 2023년 11월 공식적으로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CDC는 2024년 2월부터 유행 지역 방문 전 거주기간, 나이,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백신 접종을 할 것을 안내하고 있음.



2024.11.8. 질병관리청

항생제 내성 세균의 생존 > 항생제 내성 세균의 증식

그러나 부적절한 종류의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복용하던 항생제를 임의로 중단하면 살아남는 항생제 내성 세균들이 생기게 됩니다.

5/8

2024.11.8. 질병관리청

불필요한 상황에서 항생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치료 효과- No 내성 발생 위험 Yes

그러므로 항생제는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처방에 따른 정확한 방법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6/8

2024.11.8. 질병관리청

첫째, 항생제 사용은 세균 감염질환에만! 바이러스 감염질환에는 항생제 사용이 불필요해요.

세균 감염질환 바이러스 감염질환

항생제 내성을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항생제 사용 방법을 기억해 주세요.

7/8

2024.11.8. 질병관리청

둘째, 항.필.제.사를 기억해 주세요.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하기!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 1 의사에게 처방받은 항생제만 복용하기
- 2 타인이 처방받은 항생제 복용하지 않기
- 3 의사의 처방에 따른 항생제 복용기간 지키기
- 4 항생제 복용 중단은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기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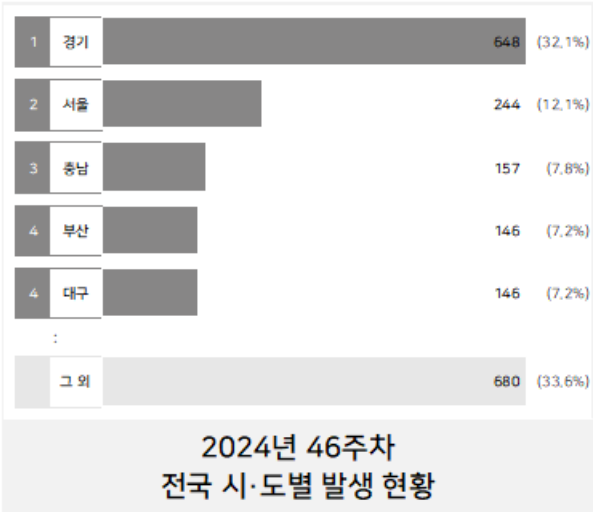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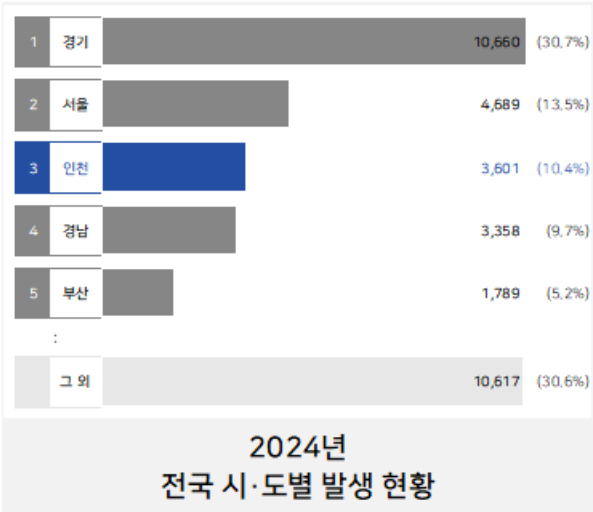
2024년 백일해 발생 현황

- 백일해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임신부, 영유아 돌보미 등 예방접종 적극 당부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4.11.12.)
- 발작성 기침 백일해, 전국 학령대 중심 유행 확산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4.7.15.)
- 백일해·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최근 4주 크게 유행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4.6.21.)
- 발작성 기침 백일해 가파른 증가세, 영아 적기 예방접종(2·4·6개월) 가장 중요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4.6.7.)
- 콜록 콜록 백일해, 최근 10년간 동기간(1.1.~4.24.) 대비 최대 발생 !! 우리 아이 예방접종(총 6회) 꼭 챙겨주세요!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4.4.26.)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1. 전국 시·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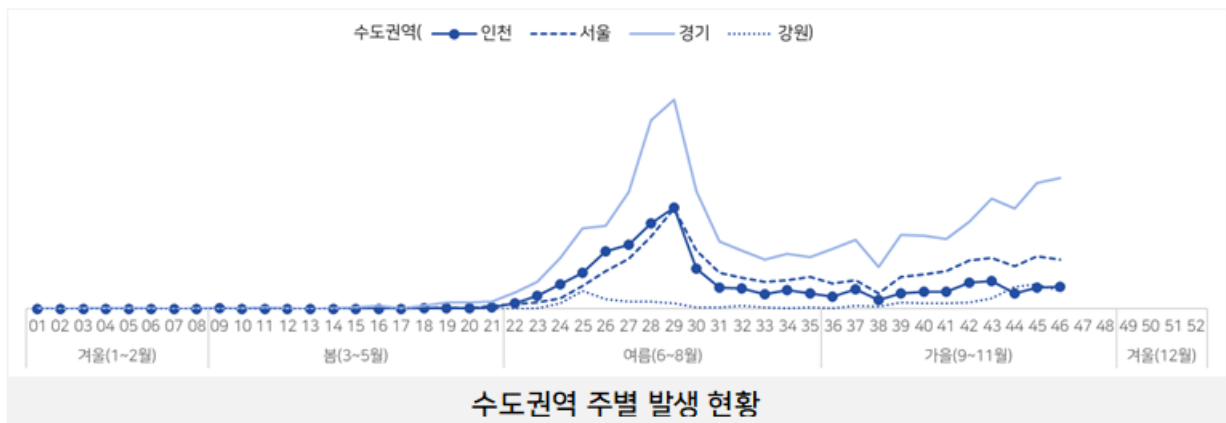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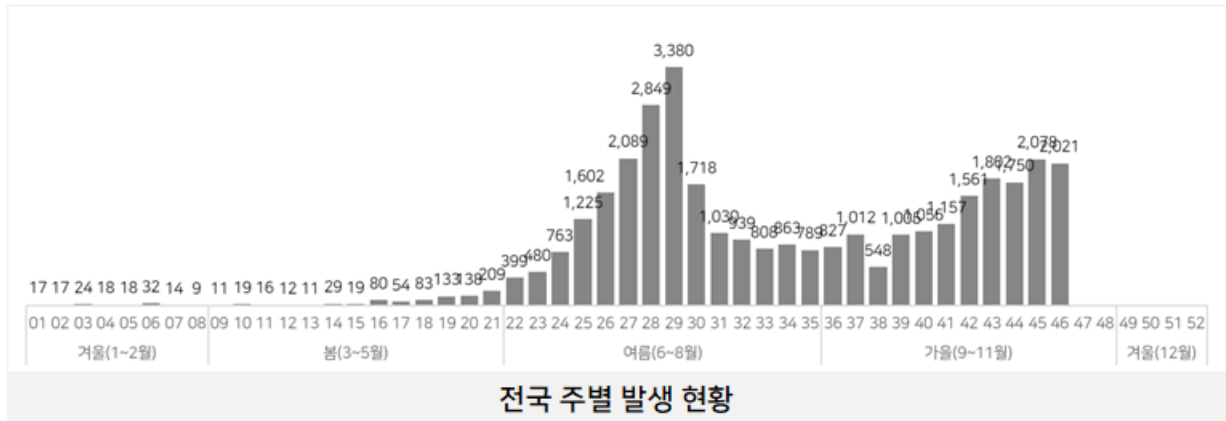
- **누적** 2024년(1.1.~11.16.) 백일해 환자 34,714명 발생
 - 경기(10,660명, 30.7%), 서울(4,689명, 13.5%), 인천(3,601명, 10.4%), 경남(3,358명, 9.7%), 부산(1,789명, 5.2%) 등의 순으로 인천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주간** 46주차(11.10.~11.16.) 백일해 환자 2,021명 발생
 - 경기(648명, 32.1%), 서울(244명, 12.1%), 충남(157명, 7.8%), 부산(146명, 7.2%), 대구(146명, 7.2%)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2. 주별 현황

○ 전국적으로 증가세 지속

- **전국** 46주차(11.10~11.16.) 2,021명으로 전주(2,078명) 대비 감소(▼2.7%)
- **인천** 46주차(11.10~11.16.) 108명으로 전주(105명) 대비 증가(▲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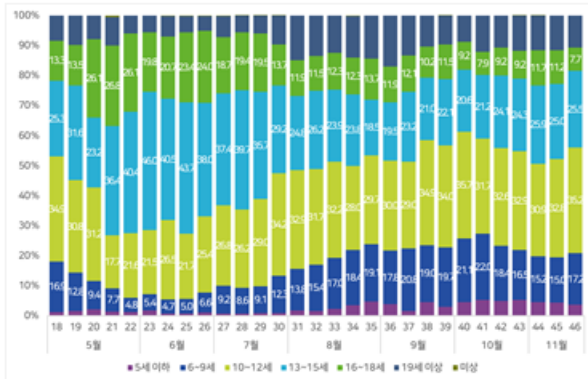


3. 성별,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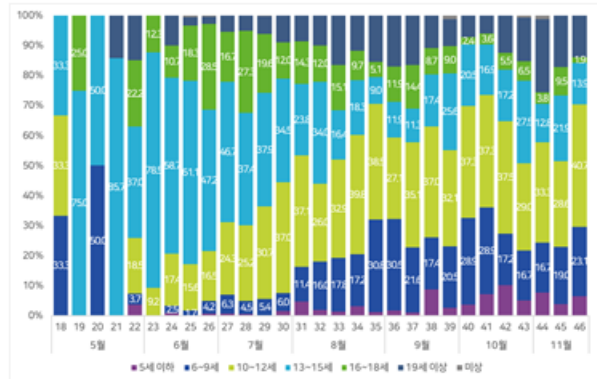
○ 중학생·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발생

-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청소년(13~18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아동·청소년(6~18세)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함. 7월 유행까지는 중학생 연령대(13~15세)의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 초등학생 고학년 연령대(10~12세)의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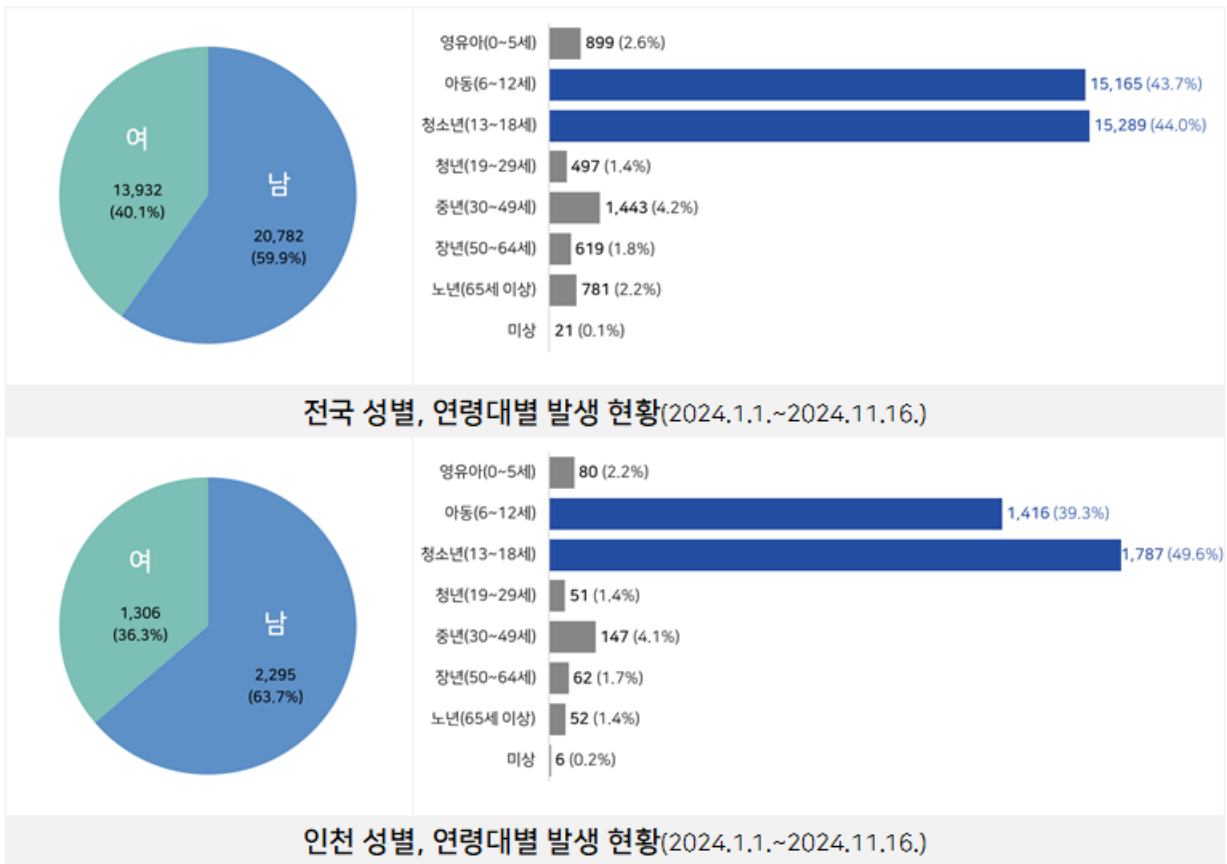
- **전국** 10~12세 비율: ^{43주} 32.9% → ^{44주} 30.9% → ^{45주} 32.8% → ^{46주} 35.2%
- **인천** 10~12세 비율: ^{43주} 29.0% → ^{44주} 33.3% → ^{45주} 28.6% → ^{46주} 40.7%



전국 주별 연령 비율 (2024.4.28~2024.11.16.)



인천 주별 연령 비율 (2024.4.28~2024.11.16.)



4. 지역별 현황

○ 2024년(1.1~11.16.) 10개 군·구 모두 발생 중

- **신고수** 서구(1,059명, 29.4%), 미추홀구(550명, 15.3%), 부평구(494명, 13.7%), 연수구(472명, 13.1%), 중구(316명, 8.8%)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발생률** 중구(202.64명), 서구(174.55명), 미추홀구(135.47명), 연수구(121.30명), 강화군(108.06명)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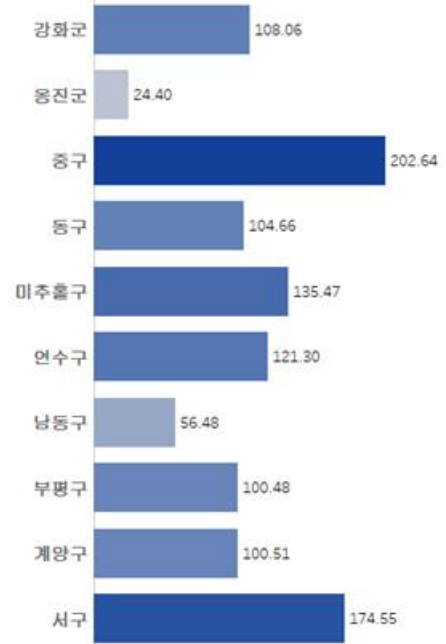
군·구별 신고수

0 1,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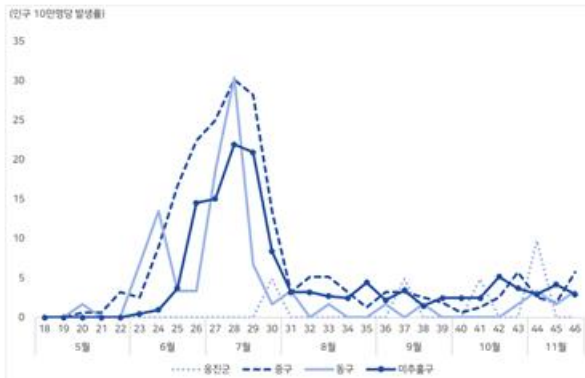


군·구별 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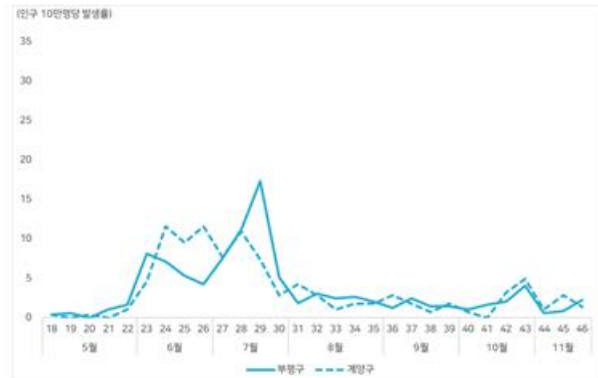
0.00 20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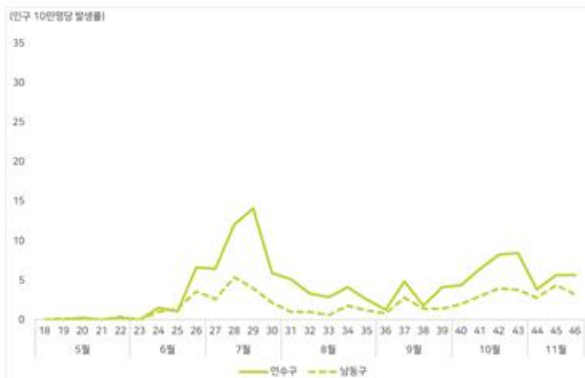
인천 군·구별 발생 현황(2024.1.1.~2024.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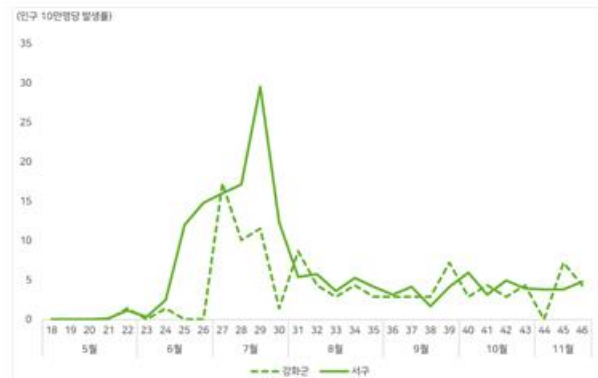
(남부) 주별 발생 현황 (2024.4.28.~2024.11.16.)



(북부) 주별 발생 현황 (2024.4.28.~2024.11.16.)



(동부) 주별 발생 현황 (2024.4.28.~2024.11.16.)



(서부, 강화) 인천주별 연령 비율 (2024.4.28.~2024.11.16.)

ICDC Weekly

인천광역시 감염병 주간소식지

